



신흥공여국 ODA 정책과 현황: 체코

2015. 12

신흥공여국 ODA 정책과 현황: 체코

2015. 12

KOICA

저자 약력

김 지 현

- 한국국제협력단 연구개발팀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사
- 주요 연구

- ▷ 2015.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 (pp.6-19)”,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pp.240-253)”,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2: Post-2015 의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분석, 개발과 이슈 22호/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개발과 이슈 1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 2014. “Aid Effectiveness and Fragmentation: Changes in Global Aid Architecture and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in *The South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Beyond Aid*, Eun Mee Kim and Pil Ho Kim (ed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공저)
- ▷ 2012. “South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Humanitarian or National Interest?,” in *South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in Transition: Selected Working Papers*, Byongwon Bahk and Gi-Wook Shin (eds.), Walter H Shorenstei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at Stanford University. (공저)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 약

체코는 비셰그라드 국가 중 폴란드와 함께 동유럽의 중견국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OECD DAC 내의 신흥공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체코는 OECD DAC 내에 신흥 공여국으로 전통적인 공여국들과는 다른 ODA 공여방식을 보여 왔다.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행한 경험과 OECD DAC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공여국과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측면에서 한국과 체코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협력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 가입을 전후로 EU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국내 정치와 연동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왔고, ODA의 공여 역시 EU에 분담하는 다자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OECD DAC과 EU의 규범 내재화에 적극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외교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한국은 체코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의제 선도 및 강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II. 체코 ODA의 역사	3
III. 체코의 ODA 전략과 추진체계	7
1. ODA 추진체계	7
2. 중점협력국가	11
(1) 프로그램 국가	11
1) 아프가니스탄	11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3
3) 에티오피아	15
4) 몰도바	16
5) 몽골	17
(2) 프로젝트 국가	20
1) 세르비아	20
2) 캄보디아	21
3) 조지아	21
4) 코소보	22
5) 팔레스타인	22
(3) 기타 국가	23
IV. 체코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26
V. 체코 ODA의 특징	33
VI. 결론	36

표 목차

〈표 1〉 체코 양자간 ODA의 10대 수원국과 비중	25
〈표 2〉 체코의 ODA: 양자/다자 및 ODA/GNI	26
〈표 3〉 체코의 다자간 협력	29
〈표 4〉 2010-2017 체코의 주요 협력국	34

그림 목차

〈그림 1〉 체코의 ODA 법체계	7
〈그림 2〉 동료검토 이전의 체코 개발협력 추진체계	8
〈그림 3〉 체코의 ODA 이행체계	9
〈그림 4〉 체코의 프로그램국에 대한 지원	20
〈그림 5〉 체코의 양자 및 다자간 ODA	28
〈그림 6〉 2013년 체코 ODA의 지역배분 현황	29
〈그림 7〉 체코 ODA의 섹터별 배분 현황 (2007-2014)	30
〈그림 8〉 체코의 ODA 수원국 소득별 분포	31

Box 목차

〈Box 1〉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12
〈Box 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14
〈Box 3〉 에티오피아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15
〈Box 4〉 몰도바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16
〈Box 5〉 몽골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18

I. 서론

체코 공화국은 냉전 기간 동안 동유럽 국가 중 하나로 1990년 공식 수교 전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미미했다. 1990년 냉전의 종식과 함께 다수의 동유럽 및 구소련국가들과 함께 체제 전환국 (transitional economies) 중 하나로 분류되어 유럽 내 주요 수원국들 중 하나가 되었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되는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13년 까지 체코의 경제는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ion, 이하 GDP) 기준 US\$ 403억에서 US\$ 2,088억, 일인당 국민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ion Per Capita, 이하 GDP p.c.) 기준 US\$ 3,904 (1990년)에서 US\$ 19,510 (2013년)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동 기간 동안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회원국 가입, 199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2004년 유럽연합 (EU)가입 등 왕성한 국제 활동으로 명실상부하게 동유럽 지역의 신흥 헤게모니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체코는 OECD 개발원조 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의 26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신흥공여국으로서의 ODA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체코는 US\$ 2.11억의 순 ODA를 제공했으며 이는 국내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이하 GNI) 대비 ODA (ODA/GNI) 기준 0.11%에 해당한다. 2013년 한국은 US\$ 17.55억의 순 ODA, ODA/GNI는 0.13%를 기록하여 금액 면에서는 약 8배 이상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경제력에 대비한 ODA/GNI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행한 경험과 OECD DAC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공여국과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측면에서 한국과 체코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협력이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 가입을 전후로 EU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가이드 라인을 국내 정치와 연동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왔고, ODA의 공여 역시 EU에 분담하는 다자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론에 이어 우선 2장에서는 체코 ODA의 역사적 배경과 OECD DAC 가입 이전의 ODA 공여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3장에서는 체코의 ODA 체계의 변화와 전략, 중점협력국에 대해 분석하며, 4장에서는 2014년 기준 체코의 ODA 현

황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앞서 본 체코 ODA의 특징을 분석하며, 이러한 OECD DAC 내의 신흥공여국 중 대표적인 체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 및 KOICA와 체코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체코가 가진 국제개발협력 체계 중 시사점을 6장에서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II. 체코 ODA의 역사

냉전 기간 동안 1960년 OECD 수립으로 서방세계의 경제협력과 원조 공여가 이루어져 온 것과 유사하게 경제상호원조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이하 COMECON) 회원국¹⁾들은 제3세계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외원조 활동을 시작했다. 냉전시대의 산물이었던 COMECON의 원조활동은 회원국 또는 전 세계의 빈곤 퇴치가 주요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목적이 주요 동기에 되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는 COMECON 내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로, COMECON의 정책과 연동하는 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원조 공여국의 면모를 갖추어갔다 (Waisova 2011).

체코슬로바키아는 1950년대-1980년대 사이 원조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해갔으며,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혹은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국가들-주로 쿠바, 몽골, 북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제공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은 일반적으로 상호 호혜의 원칙에 근거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계획경제를 고수했던 개발도상국들과도 호혜적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1980년대 시리아,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인도, 콩고-베냉, 멕시코, 베네수엘라,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이란 등도 이러한 이유로 ODA/GDP 0.18% 규모의 체코슬로바키아의 원조 수원국이 되어, 무역 관계에 따른 원조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Waisova 2011).

이후 1990년대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유럽 블록이 해체되면서 동유럽 블록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개발협력 체제도 붕괴되었으며, 동유럽블록에 속했던 국가 대부분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전환 (transition) 과정이 시작되었고, 서유럽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이들에게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이 시기 유럽부흥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은 체코슬로바키아에 차관과 기금을 제공했고 세계은행은

1) 1949년 소련의 주도하에 설립되어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소련의 6개 국가 경제 통합 조직을 시작으로 이후 알바니아, 1950년 동독, 1962년 몽골이 회원국이 되었다. 1961년 알바니아는 탈퇴하고, 1972년 쿠바, 1978년 베트남이 가입하여 10개국의 연합이 되었다. 준 회원국으로 유고슬라비아, 북한,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라오스, 중국이 참여하였다.

재정지원을, EU는 기금과 차관을,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등 선진국 개발협력 기관도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USAID 2013).

1989년 EC는 ‘폴란드와 헝가리 경제재건 원조 (Poland and Hungary: Assistance for Restructuring their Economies, 이하 PHARE)’를 시행했다. PHARE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폴란드와 헝가리에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민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제공되었다. PHARE의 지원범위 확대로 인해 체코는 1993년부터 원조를 제공받기 시작했으며, PHARE 기금은 주로 공공행정과 제도 개선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위한 거버넌스 영역)에 집중 투입되었다. 이와 함께 EBRD의 원조도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탈 공산주의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지원했다. EBRD는 1992년부터 103개 프로젝트에 470억 유로를 지원했는데 이 중 체코에 지원한 금액은 110억 유로에 달해 약 1/4가량의 지원액이 체코에 집중되었다.

동 기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는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IBRD)부터 시장경제 전환, 에너지 산업, 환경, 통신 분야에 대한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생물다양성 보존, 에너지 효율성 증진,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관련 분야에도 차관이 활용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코는 체제전환기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 다자원조를 제공받았다. 이 외에도 1990년에서 1997년 사이 미국 USAID는 ‘동유럽 민주주의 지원 (Support for East European Democracy)’ 프로그램은 체코가 지원받은 대표적인 양자협력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USAID는 US\$ 1억 3,500만을 무상원조로, US\$ 3,400만을 유상원조로 제공하면서 거버넌스, 민주주의, 경제성장, 보건, 사회복지, 환경보존 분야에 원조를 집중 지원하였다 (USAID 2012). 이와 함께 캐나다 국제개발기구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이하 CIDA)는 중부유럽 개발원조청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Central Europe)이 비셰그라드²⁾ 국가와 발트 3국³⁾의 개발원조 체제구축을 위한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지원은 2004년 비셰그라드 4국이 모두 EU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CIDA 2005).

2) 중앙유럽 4개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지역 협력체

3)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990년대 중반부터 중부유럽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들 국가들과 EU 사이의 가입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동구권 국가 가운데 첫 번째로 1995년 OECD 가입 이후 체코는 서서히 ODA 공여국으로 변모해갔다. 그러나 이 시기 체코는 여전히 ODA 뿐만 아니라 공적원조 (Official Assistance) 수원국임과 동시에 공여국이었다. 2001년부터 UNDP에서는 체코를 공여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이후 2004년 EU 가입까지 체코는 개발원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데 주력했다 (Horky 2010).

EU 가입으로 체코의 모든 면에서 변화되었으며, EU 가입 이후 개발협력은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체코는 EU 회원국으로서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EU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로마조약 이래로 EU의 주요목표와 의제로 주목되어온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국내 대외정책 안으로 수용하였다. 이와 함께 EU 가입 이전 OECD 회원국이 되면서 OECD 내의 원칙과 규범을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OECD 가입이후 체코는 개발원조를 체계화해 나갔는데, 우선 가입해인 1995년에 ‘대외원조규정에 관한 원칙 (Principles on the Provision of Foreign Aid)’을 수립하여 ODA 체계 갖추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중기 개발원조 재정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1995년과 2003년의 제도개선에서는 UN과 OECD가 정의한 ODA 기본원칙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또한 체코는 1995년 코펜하겐 20/20원칙⁴⁾ 결의안을 받아들였다. 이 원칙에 따라 개발원조 규정을 마련한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체제가 재편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개발원조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배정된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했다. 주로 외교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교육부가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개발원조와 관련된 재정문제는 재무부가 전담하는 등 초기 개발협력 체계는 1995년 OECD 가입 이후 2000년대 초반 EU 가입 전까지를 기점으로 확립되어갔다.

OECD 가입 이후 체코 정부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대외원조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해 2002년 ‘2002-2007년 개발협력 컨셉 (Development Cooperation Concept, 이하 DCC)’을 수립하였다. 체코는 EU와 OECD의 원칙과 권고에 따라 DCC를 설정하고 환경

4)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에서 건의된 개발정책으로, 개도국 정부재정의 20%와 공여국 개발원조액의 20%를 해당 수원국의 기초사회서비스(basic social services)에 투자한다는 원칙이다. 20:20 vision, 20:20 compact, 20:20 policy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KOICA 국제개발협력용어집 참조)

과 지역협력을 중점분야로 선정하였으며, 국민과 국가 사이의 연대원칙, 수원국의 요청주의, 파트너십, 효율성과 투명성 또한 강조되었다 (Sladrova 2011). 동시에 체코는 개발협력을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상정하고, 안보와 경제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Sladkova 2011). DCC를 비롯한 기타 ODA 관련 공식 문헌 (official documents)에서는 개발원조의 공여가 체코의 안보 이해관계와 일치해야 하며, 수원국과의 정치 및 경제 관계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원조의 규모가 줄어들고 다자원조가 확대되면서 EU의 우선순위가 강조됨에 따라 공여국 간의 이해관계, 안보와 경제적 이해 관계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ODA 공여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2004년 'EU 가입 이후의 대외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Development Cooperation Guideline after the Accession of EU)'을 통해 개발협력 개념을 새로이 정의했다 (No. 302/2004).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체코의 개발협력목표를 빈곤퇴치, 수원국의 경제발전 지원, 수원국의 세계시장 편입지원, 농업발전, 법치 (rule of law), 인권 보호로 규정했다 (Sladkova 2011). 또한 체코가 분쟁지역의 재건과 난민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ODA 우선국가를 12개국에서 8개국으로 한정하였다. 앙골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예멘, 몰도바, 몽골,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베트남, 잠비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06년 체코 정부는 OECD DAC 가입을 위한 특별동료검토 (Special Review)를 수검하게 되었으며, 체코는 특별동료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발협력법을 입법하고 DCC를 다시 설정하였다. 새로운 DCC는 OECD DAC의 권고안,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유럽개발컨센서스,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DCC에서는 ODA 우선국가를 5개로 줄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틀을 마련했다. 또한 2008년 체코 개발청 (Czech Development Agency, 이하 CzDA)을 설립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결국 체코의 개발협력은 국제기구와의 가입과 그에 따른 권고안들을 내재화 시키는 과정에서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중견국 (middle power)들의 외교적 특징 중 하나인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에 기반한 대외전략의 한 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Ki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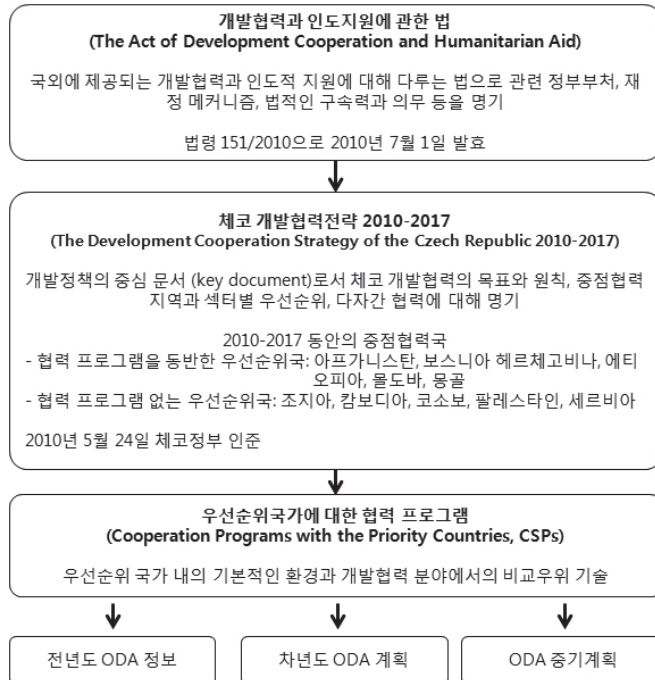
III. 체코 ODA 전략과 추진체계

1. ODA 추진체계

체코는 공여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개발협력 체제를 대폭 개편하였다.

2010년에 수립된 체코의 개발협력법은 한국의 개발협력 기본법과 유사한 형태로 체코의 개발협력과 ODA를 정의하면서 각각의 주체가 되는 부처들의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외교부는 체코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으로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내각)에 상정하여 인준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 1). 이렇게 수립된 것이 체코 개발협력전략 2010-2017년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f the Czech Republic 2010-2017, 이하 2010-2017 개발협력전략)으로 개발정책의 최상위 (umbrella)

〈그림 1〉 체코의 ODA 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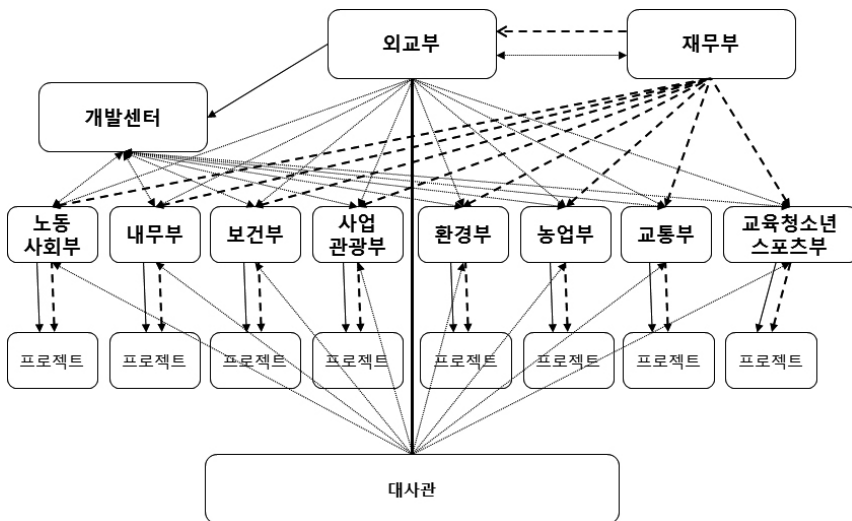


출처: Sladkova (2011).

문서로서 체코 개발협력의 목표와 원칙, 중점협력 지역과 섹터별 우선순위, 다자간 협력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서를 근거로 외교부와 CzDA는 우선순위국가에 대한 각국별 협력 프로그램들 수립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배분과 ODA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특별검토 당시 체코의 개발협력 추진체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부처가 개별적인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ODA 관련 예산 역시 재무부에서 개별 부처로 지원되었으며⁵⁾, 특별검토에서는 체코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교부가 단일화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양자원조 예산을 어느 국가에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파트너국가의 정부가 동의하는 가운데 개발의 목적에 기반하여 외교부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의 양자 원조 체계는 제도적으로 1) 유관한 부처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2) 통합된 원조 이행기관을 수립할 것; 3) 부처와 새로 수립될 이행기관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4) 개발협력에 필요

〈그림 2〉 동료검토 이전의 체코 개발협력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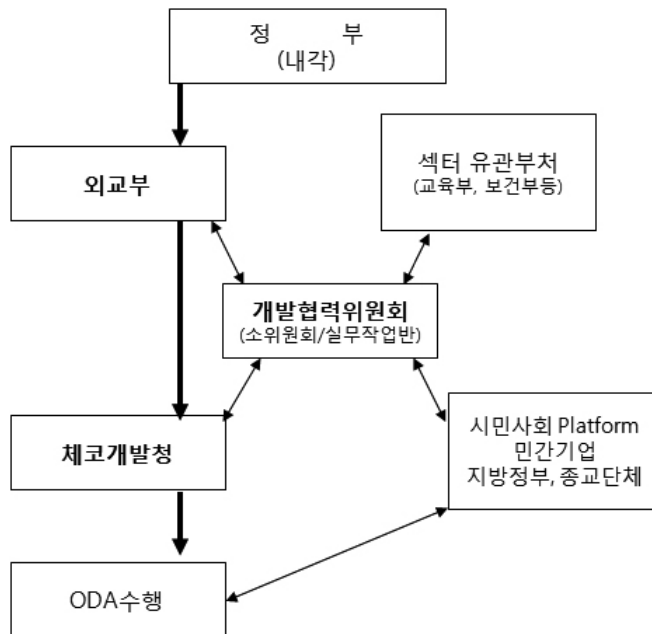
출처: Sladkova (2011).

5) 굵은 점선은 예산의 흐름, 점선은 협력관계, 실선은 ODA 이행을 의미함.

한 정보를 가진 담당자를 우선순위 국가에 있는 대사관에 파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특별 동료검토의 권고를 통해 체코가 개선에 집중한 것은 ODA 기구의 분절화로 인한 예산집행과 활동 감독 기구의 부재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 법령의 정비였다. 체코는 이를 국제개발협력법을 수립하고 이 법령 안에 외교부와 CzDA, 내무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통합된 기구조직을 갖추었다 (그림 2).

〈그림 3〉 체코의 ODA 체계



출처: OECD DAC 웹사이트.

법령에 따르면 외교부의 역할은 개발협력의 전략과 원칙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 개발협력 연간 계획의 수립 및 정부 승인을 위한 계획 수립;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결정; 개발협력의 원칙에 따라 외국 기관에 재정 분담금 제공; 개발협력 분야에서 다른 정부 기관과의 조정; EU의 법률 안에서 다른 공여국들이 주도하는 개발협력 프레임워크 내 프로젝트 이행에 참여하는 체코 기구를 지원;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EU와 EEA 이외의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결정. 이러한 결정 시 내무부와 협의;

유럽연합위원회 내 정보교류 등을 포함하여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EU 기관과의 협력 등 사실상 체코의 모든 ODA 활동에 있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체코의 ODA 이행기관으로 볼 수 있는 CzDa는 외교부의 산하기관임과 동시에 정부 행정 기관으로 설립되며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를 담당; 외교부의 예산으로 CzDA 지원; CzDA는 독립적인 회계주체로서 국가의 개발협력전략에 따라 개발협력 제공,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의 수행, 개발협력 계획에 따라 기타 체코 정부기관의 무상원조 지원 (기타 정부기관은 외교부의 동의를 거쳐 무상원조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부처 내에서 ODA 관련 주요부처 중 하나는 내무부이다. 내무부는 EU 회원국과 유럽경제 지역 구성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며 외교부에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통보해야 한다.

체코의 개발협력은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중 개발협력 비즈니스 플랫폼 (Platform of Business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이 비즈니스 플랫폼은 체코 최대의 민간경제단체인 체코산업연합회 (Confederation of Industry of the Czech Republic)와 엔지니어링 기술협회 (Association of Engineering Technology)와 체코 철도산업협회 (Association of the Czech Railway Industry)가 공동으로 수립되었다. 이 플랫폼은 체코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이하 CSR)차원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측면에서도 수익과 개발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즉, 체코 기업이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민간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체코의 기술이나 서비스 공급자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여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에서 있어 또 다른 한 축은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들의 참여이다. 개발 협력을 위한 체코 포럼 (Czech Foru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FoRS)는 개발협력 및 개발교육, 인도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비정부기구 (NGOs)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약 60여개의 NGOs, 국제기구, 재단, 대학 및 기타 기구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FoRS는 구호와 개발을 위한 유럽 NGO 연합 (European NGO Confeder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이하 CONCORD)의 창립 기관 중 하나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CONCORD는 EU 내 1600여 NGOs들의 네트워크이자 국별 플랫폼을 아

우르는 연합체로 이 안에서 체코 NGOs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EU 차원의 NGOs 활동을 강화 해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즉, FoRS는 EU의 NGOs 활동과 체코의 국내적 활동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체코의 ODA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EU 활동과 대외정책의 연계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점 협력 국가⁶⁾

체코는 중점 협력국가를 프로그램 국가 (Program Countries), 프로젝트 국가 (Project Countries), 기타 국가 (Other Countries)로 층위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1-2017 체코의 개발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중점협력국에 대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프로그램 국가

2010년, 체코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하는 지리적 우선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지난 5개년 사이클(2005-2010) 동안, 체코 공화국은 8개의 중점 협력국(priority countries)들에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원조를 제공해왔으며, 그러므로 이 국가들은 프로그램국이 되었다 (앙골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예멘, 몰도바, 몽골, 세르비아, 베트남, 잠비아). 이들 국가들은 2010년 새로운 전략의 도입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현재 협력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협력국은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티오피아, 몰도바, 몽골 등 6개국으로 줄어들었다.

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오랫동안 체코의 외교정책 우선 순위 국가였으며, 이에 따라 2010-2017 체코 개발협력 전략에서 중점 프로그램국에 포함되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좋은 상호 관계에 기반하여, 개발 프로젝트, 인도주의적 활동, 아프간개발기금에 대한 공헌과 Logar 지역에서

6) 이하의 중점협력국은 CzDA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czda.cz/czda/en_126.htm?lang=en 의 국별 자료 참조 (접속일: 2015.12.1)

체코 지방 재건 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이 수행했던 개발 사업을 포함한 체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했던 이전 사업들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체코의 ODA는 2011-2017년 사이 기간동안 경제 안정화와 아프가니스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기초를 놓는데 특히 중점을 두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체코의 기본 전략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의 모든 차원의 경제 활동과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수원국 내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며, 시장경제로의 이행 경험, 관리와 거버넌스의 근대화의 경험 등을 모든 프로젝트의 투입과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다.

〈Box 1〉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체코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순위섹터	배분	OECD DAC 용어의 우선순위섹터
농업	30%	농업
물 관리(water management)	30%	물과 식수위생
농업 교육(agricultural education)	40%	교육

① 농업

- 국가 표준의 도입, 특히 육종 및 농업 생산품의 가공 표준 도입
- 효율적인 농업과 농업 생산품 가공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업 공동체(farming community) 지원
- 농업 생산자의 시장 진입 지원, 사업의 잠재성(potential) 파악 지원, 환경 친화적 농경법을 사용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움

② 물관리

-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수자원 데이터 수집 방법론 수립
- 수리구조물(hydraulic structures)과 물 관리 시설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자원의 경제적 관리 증진을 포함한 농업 공동체에서의 소규모 물 프로젝트 이행과 이를 통한 현지 농업과 경제의 개발을 위한 수자원의 적절한 공급과 규칙적인 분배를 보장

③ 교육

- 농업 및 관련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표준과 접근성 향상
- 아프간 정부의 농업 교육을 위한 전략적 계획 이행 지원
- 새로운 전략 형성을 위해 체코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에 참여
- 농업 생산품 마케팅 훈련을 통해 농업 부문의 경제적 자립 지원

Box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체코의 중점 분야는 농업 (농업 교육 포함) 과 물관리 분야로 세부적으로는 수자원 활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과 경제성 증대와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시장접근 개선이 주요 관심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범분야 이슈로서 체코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은 아프간 정부 역량 강화, 경제 및 사회 과도기(transition) 경험 공유, 법제의 구축, 기술지원, 전문가 훈련을 포함한 기술 이전 협력, 중소기업 지원 (자문 또는 재교육 포함), 거버넌스 분야 중 부패척결, 약물 중독과 관련 범죄 및 의학적 영향(medical impacts) 방지, 귀국자들의 사회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NGOs 지원, 환경 및 기후를 고려한 사회 내 양성 평등의 적극적인 홍보/향상과 여성, 청년, 귀환자, 실향민(난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분야를 중점 지원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체코의 국별 전략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원국 내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지정학적 고려요인은 현재 와 현재 상태로 예측된 미래의 안보 상황과 접근성이다. 수도인 Kabul과 이외 북부지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 진행해 온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조치 및 관련 활동은 이 지역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Logar의 지방 재건 팀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을지라도, 체코는 동 지방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코가 자금을 지원했거나 이행을 지원한 프로젝트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체코는 양자적 개발협력의 범위에서 어떤 지역도 제외하지 않은 반면, 개발협력의 내용적인 부분과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체코의 전문성과 경험이 가능한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지금까지 체코와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개발 협력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에 초기부터 중점협력국이 될 수 있었다. 현재 프로그램 기간 동안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럽연합 가입 장애물 제거가 중점 영역으로 남을 것이다. 체코의 개발협력 또한 생산 및 모든 정치경제 활동에 부가가치를 체코의 체제전환 및 EU 가입 과정에서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Box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지원은 주로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EU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국내적 제도 수립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Box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체코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순위섹터	OECD DAC 용어의 우선순위섹터
환경	물 공급 및 위생(water supply and sanitation)
	일반적 환경 보호
경제 발전(에너지 포함)	에너지 발전 및 공급
사회 개발(교육, 사회, 보건 서비스 포함)	정부와 시민사회
	보건
농업	농업, 산림, 어업

① 보건

- 보건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인프라의 질적 향상
- 전반적인 보건 서비스 향상

② 물과 식수위생

- 폐수 처리 시설과 하수도 중심의 둔 식수 공급과 위생 시스템 제공
- 수자원의 품질 보호, 활용, 모니터링
- 환경 부담 완화, 폐수 관리 체계 현대화 및 대기 보호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 지원
- 체제전환 이행 경험 공유 및 EU 가입 지원

③ 정부와 시민사회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행정 역량 강화, 경제 및 사회전환에 관한 지식 전수, EU가입을 위한 법제도 강화
- 시민사회 지원과 시민 이니셔티브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 강화
- 교육과 고용 서비스의 질, 교육 시스템과 신흥국 및 시장의 필요를 연결, 학교 인종차별 폐지 지원
- 비정부, 비영리 기관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방 프로그램(prevention programme) 지원

④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활용 협력 및 기기(appliances)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협력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EU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 관련 법률 및 전략의 생성과 이행을 지원

⑤ 농업

- 식량 안보 증대 및 가축 사육의 생산과 품질 증대에 중점을 둔 기관과 중소규모 농장에 대한 지원
- EU에 적용되는 수의학적, 식물위생학적 표준 적용 지원

⑥ 환경보호

- 환경보호 행동계획의 수립 지원; 홍수 보호 조치 도입
- 기후변화 대응 지원 (현대적 환경기술 이전, CO2 배출권 거래 등)
- EU 표준, 자격요건, Natura 2000 프로그램의 도입과 조화 지원

EU의 지원 하에 체제 전환을 이행했던 체코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비롯한 체제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는 중점지역을 선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과 지역 균등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에티오피아

개발 협력 부문에서 체코는 특히 교육과 수자원 관리 부문 및 농업과 사회 개발 부문에서 2001년부터 에티오피아에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리학적 측면에서 체코 공화국의 개발 원조는 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al State, 그리고 주도 (Capital)인 Awassa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Amhara National Regional State 내의 Gondar에서의 독립된 프로젝트들과 함께 일부 활동들은 국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수행되고 있다.

〈Box 3〉 에티오피아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체코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순위섹터	OECD DAC 용어의 우선순위섹터
환경	물 공급 및 위생(water supply and sanitation)
	재난 방지 및 대비
사회 개발(교육, 사회, 보건 서비스 포함)	교육
	보건
농업	농업, 산림, 어업

① 교육

- 교육 분야에서 체코 공화국은 5대 일반 교육 품질 향상 프로그램(General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Programme, GEQIP) 중 하나인 교사 개발 프로그램(Teachers' Development Programme, TDP)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함
- 초중등교육에 현대 교수법을 시행
- 직업 훈련, 특히 가족 공정 교육

② 보건

- 성장 및 변화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을 수립
- 1차 진료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의료진의 수와 자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
- 모자 건강보험(mother and child care)
- 농촌 지역민들의 보건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지역 보건 관계자(communitry health workers) 개발

③ 수자원관리 및 식수위생

- 소규모 마을과 농촌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원을 건설
-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지리학(hydro-geology)에 집중
- 물 자원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지역 역량의 구축
- 지역 사회, 여성 사회, 학교 등을 통해 위생 습관에 관한 인식 개선

4) 몰도바

몰도바는 체코 공화국의 안정적이고 중요한 개발 협력 파트너다. 몰도바 양자 프로젝트에 지난 5년간 투자된 자금은 총 2억 CZK (800만 EUR)에 달한다. 다수의 체코 개발 주체들이 개발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했다 (기업, NGOs, 대학 등).

〈Box 4〉 몰도바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체코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순위섹터	OECD DAC 용어의 우선순위섹터
환경	상수도 및 위생
	보편적 환경 보호
사회 개발 (교육, 사회 및 보건의료 서비스 포함)	교육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농업	농업, 임업 및 수산업

① 식수위생과 관리

- 수자력 보호 및 개발을 위한 협력
- 위생 및 폐기물 관리
- 환경완화 활동

② 정부

- 정부 역량 강화 및 경제 및 사회 변혁 지식이전, 법률 규범 향상
- 전자정부 시행을 위한 지원, 정부와 시민들의 소통 지원
- 시민 사회 생성을 위한 지원, CSO의 역할 및 NGOs 강화
-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체를 위한 지원 및 지역 개발
- 공공 재정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
- 이주 관리를 위한 협력;
- 사회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협력;
- 아동 및 여성 학대 해결을 위한 몰도바 정부 지원

③ 교육과 기타 사회 인프라

-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육, 사회 프로그램 및 고용 정책의 연계 시스템 생성을 위한 협력;
- 사회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방안으로서의 주택 지원
- 국가적 규모의 주택 복지 및 관련 제정법 개혁
- 장애인 및 사회 취약 계층의 통합에 대한 협력;
- 고아들을 위한 사회 복지의 국가적 계획 작성 지원

④ 농림수산

- 중소규모 농업 지원 협력;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 안전 향상

⑤ 환경보호

-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처 및 손실 최소화
- 홍수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다른 주요 공여국들이 적용한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체코는 지역적 집중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몰도바 영토의 규모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몰도바에 대한 전국적 역량 및 인프라 개발 구축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활동들이 이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몽골

몽골은 체코 공화국 개발협력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개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국가이다. 2006-2010년에 시행된 체코 공화국과 몽골의 개발 협력 프로그램은 경제 및 산업 개발, 환경, 농업, 농촌 및 사회 개발을 우선 분야로 선정했다.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약 20개의 양자 개발 프로젝트가 체코의 개발협력으로 시행됐다. 뿐만 아니라 작물 개선, 축산, 가뭄, 발전소 재정비, 병원용 전문 장비, 식수 파악 및 수립, 지리학적, 사회적으로 배척 된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 개선과 같은 추가적인 소규모 지역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시행된 반면, 농업 프로젝트는 도르노고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ox 5〉 몽골에서의 체코 개발협력 전략 우선순위 섹터

체코 개발협력 전략의 우선순위섹터	OECD DAC 용어의 우선순위섹터
사회 개발 (교육, 사회 및 보건으로 서비스 포함)	교육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환경	상수도 및 위생
경제 개발 (에너지 포함)	사업 및 기타 서비스
	에너지 발전 및 공급
농업	농업, 임업

① 교육

- 교육의 분권화 지원
- 농촌 지역의 농업 또는 가공업 및 생산을 위한 직업 훈련
- EC활동에 보완적임과 동시에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밀레니엄 챌린지 어카운트와 같은 타 공여기관의 프로젝트 원조조화를 위해 노력

② 식수위생

- 식수 품질 개선, 폐수처리 및 채굴 가공업으로 인한 토지 회복과 관련된 사업
- 보건 및 환경 리스크 평가, 환경 자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 환경 기준 및 정책 작성 경험 전수
- 식수위생 관련 역량개발을 지원

③ 기타 사회인프라

- 사회 및 건강 서비스 개발 지원, 사회 공공 비즈니스 분권화, 사회 공공사업에서 교육 기준 개시, 노동시장에 장애인 참여, 경제적 활동의 전반적인 개발
- 전문가를 통하여 장애인 및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복지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④ 에너지

- 현대 생산 절차 적용 및 새로운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몽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 지식 전수를 활성화하는 장비 및 직원 교육을 위한 연수 센터 지원을 통해 운영의 현대적 경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
- 새로운 기술, 기준, 노하우 도입을 촉진

⑤ 민간 부문

- 중소기업 지원
-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능력 향상 및 시장성 개선
- 해외 시장에 수출 시 (특히 유럽 지역) 주요 장애물은 기초 업무 및 기술 절차와 표준의 부재→개발 활동에 기술, 표준 및 절차 전수를 포함하며, 중소기업이 적절한 사업 계획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을 지원
- 국제 규모 조달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지역 시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생성

⑥ 농업

- 과일과 채소 생산 재가에 기여하여 몽골 사람들의 생산 유효성(availability of the produce)을 개선
- 반건조 지역의 개발 사업은 관개를 위한 적합한 수력 파악과 연계
- 식품 공업 체인의 생산 및 이후 지원을 포함한다.
- EU 기준 도입에 참여하고 축산 강화, 토지 착취(landscape exploitation), 과도 방목, 양치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사업 및 동결방지를 지원
- 몽골 정부의 그린벨트 전략 계획을 고려하여 저항성 수종 재배를 통해 초목을 복구하는 사업을 지원
- 식품가공 단위(processing unit)를 생성하고 지역 단계에서 자급자족, 경쟁성, 안정성을 확립
- 소규모 농업 종사자들이 잉여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분배 및 처리 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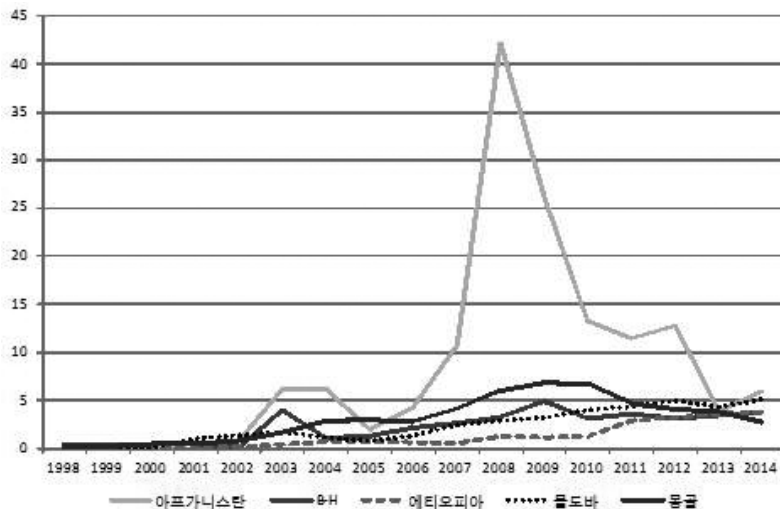
⑦ 범분야 이슈

- 몽골 정부 역량 강화 및 경제, 금융, 사회적 변화, 법규와 관련한 지식 전수
- 기능적이고 안정적인 시민 사회 생성 지원, 시민 이니셔티브 및 비영리 기관 촉진
- 변방 지역의 공동체 개발 지원
- 여성(여아) 및 남성(남아)의 성평등 지원, 여성 및 여아 역량강화
- 타 공여국과 협력 및 협조
- 기술, 기준, 절차 전수

지역적으로는 몽골의 남서 빈곤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설정하면서 농업 및 사회 공공 서비스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상수도, 울란바타르와 중심지방의 사업 및 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시행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략서를 통해 밝히도 있다.

이러한 전략서들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국가들에 대한 ODA 실제 배분은 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체코의 프로그램국에 대한 지원



출처: OECD dat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에티오피아, 몰도바에 대한 지원은 2010년 전략서 발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체코의 지원은 2008년 US\$ 4,200만을 기록한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지원 역시 전략서 수립 이전부터 시작된 감소세를 역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2) 프로젝트 국가

1) 세르비아

2000년부터 세르비아는 전후재건과 경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착수하였으며 이후 2013년 코소보를 인정하고, 양측이 모두 EU 가입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EU와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1990년대 말 코소보 분리 독립을 두고 벌어진 내전으로 수십만명의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

했다. 이러한 전후 재건과 2018년 가입을 목표로 EU 기준에 맞도록 국내 법령과 제도를 정비
를 위해 체코는 세르비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0-2017 개발 협력 전략에서 세르비아는 다양한 섹터에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었다.
체코의 원조는 대부분 보건 및 보건 관련 분야에 할당되었으며 교통, 산업제조를 위한 지원에
도 사용됐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산드자크 (Sandzak) 지역 및 수마디자 (Sumadija) 지역의
소수 이슬람들에게 집중 지원했다. 세르비아에 대한 지원은 2000년대 초 US\$600만 정도 수
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US\$ 358만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기준 US\$
171만을 기록하였다 (OECD 2015).

2) 캄보디아

체코의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앙코르와트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 뿐
만 아니라 특히 타케오 (Takeo) 지역의 보건,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캄
보디아에서 시행된 개발 프로젝트는 타케오 지방의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어린
아이들의 영양 관리의 품질을 개선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적 지원을 강화하
며, 모자보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동 프로젝트들은 농촌 지역의 가장 빈곤한 거주
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빈곤 감소 및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2010년 US\$ 20만으로 오랜 신뢰관계를 강조하는 외교문서 상의 수사에 비해 매
우 미미했으나, 2010-2017 개발협력 전략 발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US\$ 111
만을 기록하며 5년 사이 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3) 조지아

체코와 조지아와의 개발 협력은 2008년 러시아와의 무력 분쟁 이후의 재건과 국가체제 회
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붕괴 및 2008년 러시아 군사 개입의 영향으로 악화
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물과 위생’은 조지아에
서 체코 ODA의 주요 분야이며 이는 고리 (Gori) 지역의 버터존 (butter zone)의 착정 (well
drilling) 및 식수 품질 검사 지원을 포함한다. 농업의 경우, 세메그레로 지역의 마르티빌리와
고리 지역의 농업 센터가 지원을 받았다. 보건 분야에서는 암 초기 진단, 질병 예방과 같은 중
요한 프로젝트가 세메그레로, 시다, 카틀리 지역에서 시행됐다. 환경 프로젝트는 투세티 지역

의 대체 에너지 지원과 트비리시 버스 네트워크 최적화로 이루어졌다.

체코는 이주 메커니즘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요 프로젝트는 트스케타-티아네티(Mtskheta-Mtianeti) 지역의 난민 공동체의 통합을 지원한다. 조지아 안에서 체코의 NGOs 참여도 활발하여, 세나키 지역의 산과 병동의 물 공급 세스팀(참여 NGO: ADRA), 쿠타이시 지역을 포함한 조지아의 방치된 지역의 경제 개발 (참여 NGO: People in Need), 구리아, 삼츠크헤/자바체티 (Guria, Samtskhe/Javacheti) 지역 소농의 효과성 증진 (참여 NGOs: Caritas CR); 고리 지역의 주택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참여 NGO: Caritas CR); 개발 및 전략을 포함한 분석 활동 및 자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고리 및 트빌리시 지역에 체코 조지아의 교육 센터를 설치 등의 프로젝트에서 자국 NGOs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4) 코소보

코소보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이는 1990년대 말 내전이 야기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악화되어갔다. 전쟁은 또한 집단 이주와 경제 및 사회 인프라에 추가적인 손실을 초래했다. 코소보는 2010-2017 개발 협력 전략에서 다양한 분야의 우선국 및 프로젝트 국가로 선정됐다. 코소보에서 진행되는 CzDA사업은 다자간 프로젝트로 지원되나 양자간 ODA도 2009년 처음 공여를 시작한 이래 2014년 현재 US\$ 216만으로 전체 양자간 ODA의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집중 sectors의 경우, 사회 인프라, 교육, 식수공급 및 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자치 영토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체코는 1990년대부터 팔레스타인에 원조를 제공해왔다. 1996년 이래 투바스 (Tubas) 주 내의 약 30개의 마을이 체코 원조를 통해 전력 공급을 받아왔으며, 체코는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2017 개발 협력 전략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영토는 10개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선정됐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는 정치적인 특수성을 이유로 주로 재정지원 (Financial

Donation)형태로 집행되어 왔다. 주로 팔레스타인 정부에 재정지원을 통해 수자원 개발, 광 발전 에너지 및 농업 개발을 프로젝트를 지원 및 관리하도록 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15년 시작된 팔레스타인 내 사회적 약자와 고등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고용지원 (Support of the employment of socially disadvantaged and graduates in OPT) 프로그램은 체코가 자국 NGOs인 Carita CR를 통해 지원하는 첫 번째 무상원조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외에도 2012-13년도 팔레스타인 학생들에게 정부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동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 수가 현재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FA 2015). 2009-2012년, 체코는 UNRWA와 Caritas Jerusalem 등 현지 NGOs를 통해 팔레스타인 시민 및 가자 및 서안지구에 있는 난민들에게 US\$ 124만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3) 기타 국가

기타 국가로는 예멘, 베트남, 잠비아, 우크라이나가 선정되었다. 체코는 'Friends of Yemen' 그룹의 일원으로서 예멘 정부의 경제 및 사회 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체코의 대 예멘 개발협력은 교육, 사회 및 보건 서비스 등 사회발전 분야와 농업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2010-2017년간의 개발협력 기조에 따라 베트남은 '기타국가'에 포함되어 그 지원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향후 지원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노하우나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노동시장 지원 등) 부문에서의 기술협력, 에너지 생산과 공급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산업-광물자원 및 광업-건설 (광물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부문, 물 공급과 식수위생 (환경부담 교육)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체코의 개발협력은 Thua Thien-Hue 지역을 비롯한 중부 베트남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고 있다.

2010-2017년 개발협력전략에서는 잠비아를 기타 국가로 분류하여 이전과는 다른 규모로 다른 중점분야에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까지 농업 (특히, 가축번식 지원), 보건 (기초보건 증진)과 교육 부문이 최우선 지원분야로 지정되었다.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2013년 이전까지로 한정되었으며, 보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체코의 개발협력은 잠비아 내에서 최빈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부 잠비아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체코는 Mongu 지역에 있는 Lewanika 의대 내에 예비 조산원 (산파)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불완전 출산과 산모관리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인 이 지역의 영

아 및 산모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잠비아의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역량 부족이라기 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에서의 우수한 보건 인력의 부족, 조산원(산파)를 포함한 전문 인력의 부재와 보건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및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3년 동부지역에서의 보건 서비스 강화 수요와 잠비아에서의 CzDA 활동에 대한 MFA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동 분야에서의 ODA 활동을 늘려가기로 결정하여 새로운 무상원조를 NGO인 Charita CR를 통해 제공하였다.

농업 부문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주로 토착종을 활용하고 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인공수정 기술을 도입하고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어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들의 3년 단위의 직업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빵, 전기, 재단 기술을 연마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역시 3년 주기의 Mongu 지역의 고아들을 위한 지속가능 돌봄 서비스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잠비아의 NGO와 함께 수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고아와 기타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들의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체코의 개발협력 대상국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부지역의 군사적 분쟁 상황 속에서 체코 정부는 Resolution no. 167/2014를 통해 긴급지원을 결의하였다. 동 예산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집행될 예정이다.

2014년 2개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는데 하나는 Donetsk와 Luhansk에서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체코 적십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적십자 내에 모바일 의료팀을 수립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현지 생산자가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체코의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현재 우크라이나가 당면하고 있는 최우선 도전과제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에서 보살펴 본 체코의 중점협력국은 단순히 명시적인 차원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코의 양자간 ODA 배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 체코 양자간 ODA의 10대 수원국과 비중

	2011	2012	2013	2014
1	아프가니스탄 (14.8)*	아프가니스탄 (19.1)	몰도바 (7.5)	우크라이나 (13.2)
2	몽골 (6.1)	몰도바 (7.4)	몽골 (6.7)	아프가니스탄 (9.3)
3	몰도바 (5.6)	몽골 (6.1)	아프가니스탄 (6.7)	몰도바 (8.0)
4	B&H** (4.7)	B&H (4.8)	에티오피아 (6.3)	에티오피아 (6.0)
5	세르비아 (4.2)	에티오피아 (4.8)	B&H (6.3)	B&H (5.9)
6	우크라이나 (3.9)	조지아 (4.0)	조지아 (5.2)	조지아 (4.6)
7	에티오피아 (3.8)	우크라이나 (4.0)	우크라이나 (4.9)	몽골 (4.4)
8	조지아 (3.8)	세르비아 (3.6)	세르비아 (2.8)	코소보 (3.5)
9	벨로루시 (2.3)	코소보 (3.4)	시리아 (2.7)	시리아 (2.9)
10	팔레스타인 (2.3)	팔레스타인 (2.5)	베트남 (2.6)	세르비아 (2.7)
전체	50.23	59.3	51.5	60.5

* (수원국 ODA 순지출/전체 양자간 ODA 순지출,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출처: MFA (2014:5) 바탕으로 재구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10대 수원국 중 중점협력국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타 국가 모두 포함)가 아닌 국가는 벨로루시와 시리아 뿐으로 최근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시리아에 대한 집중지원 경향을 감안한다면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액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이 실제 배분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체코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1. 체코의 ODA 규모와 전망

체코의 ODA/GNI 비율은 EU 신규 가입국 중 상위에 속하나 기존의 EU 국가나 OECD DAC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5년부터 EU가 권고한 ODA/GNI 비율인 0.11%는 넘어섰으나, 2010년까지 ODA/GNI 0.17%, 2015년까지 0.3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체코의 ODA: 양자/다자 및 ODA/GNI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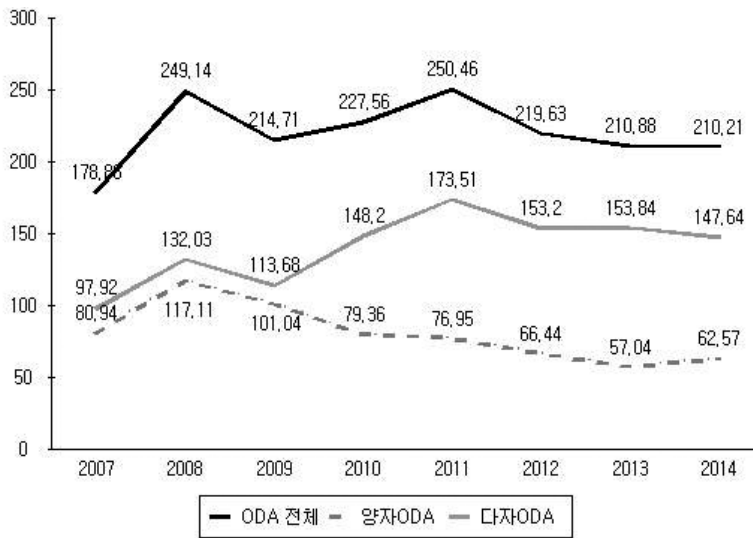
년도	순 ODA	전년대비 증감율 (%)	양자원조 (%)	다자원조 (%)	ODA/GNI
1998	16.16	—	5.87 (36.3)	10.29 (63.7)	0.03
1999	14.8	-9.19	6.64 (44.9)	8.16 (55.1)	0.03
2000	16.16	+9.19	6.36 (39.4)	9.8(60.6)	0.03
2001	26.49	+63.93	14.94 (56.4)	11.55 (43.6)	0.05
2002	45.43	+41.69	31.31 (68.9)	14.12 (31.1)	0.07
2003	90.55	+99.32	80.36 (88.8)	10.19 (11.2)	0.11
2004	108.22	+19.52	63.58 (58.7)	44.7 (41.3)	0.12
2005	135.15	+24.89	64.62 (47.7)	70.73 (52.3)	0.11
2006	160.87	+15.99	77.7 (48.3)	83.17 (51.7)	0.12
2007	178.88	+10.07	80.95 (45.3)	97.93 (54.7)	0.11

2008	249.21	+28.23	117.14 (47.0)	132.07 (53.0)	0.12
2009	214.7	-16.08	101.02 (47.1)	113.68 (52.9)	0.12
2010	227.56	+5.66	79.36 (34.9)	148.2 (65.1)	0.13
2011	250.46	+9.15	76.96 (30.7)	173.51 (69.3)	0.13
2012	219.63	-14.04	66.44 (30.3)	153.2 (69.7)	0.12
2013	210.88	-4.15	57.04 (27.1)	153.84 (72.9)	0.11

출처: OECD data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코의 원조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되었으나,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 EU 가입 이후로 ODA/GNI는 0.11% 이상을 항상 달성해왔으며, 2011년 ODA/GNI 0.13% 절대 규모 기준 US\$ 25억 46만을 공여하여 체코 역사상 가장 ODA 제공규모가 높았던 해로 기록되고 있다. 2013년 달성한 0.11%는 OECD DAC 내에서는 28개국 중 25위에 해당하나, 비셰그라드 국가인 폴란드 (0.08%), 헝가리 (0.09%), 슬로바키아 (0.08%)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면에서 폴란드와 체코의 ODA는 큰 차이를 보이나 (폴란드: US\$ 4.37억 OECD DAC 회원국 중 21위, 체코: US\$ 2.09억 OECD DAC 회원국 중 25위) GDP 기준으로 폴란드의 경제수준이 (US\$ 5,259억)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체코의 양자 및 다자간 ODA



출처: OECD data

체코 ODA의 특징은 다른 중부유럽 및 동유럽 OECD DAC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다자원조 비율을 꼽을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US\$ 5천7백만, 전체 ODA의 27%가 양자원조로 제공되었다. 달리 말하면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자원조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27%를 크게 웃돌면서 완전히 반대의 배분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7% 정도를 더 다자간 non-core contribution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자원조에 대한 집중도를 볼 수 있게 한다. 표 2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까지는 양자간 ODA는 40% 전후를 기록했으나, 2010년 이후 다자간 ODA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2017년 개발협력전략서 상에서 천명한 EU를 통한 ODA 활동 강화 및 기타 공여국과의 연계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MFA 2010).

〈표 3〉 체코의 다자간 협력 (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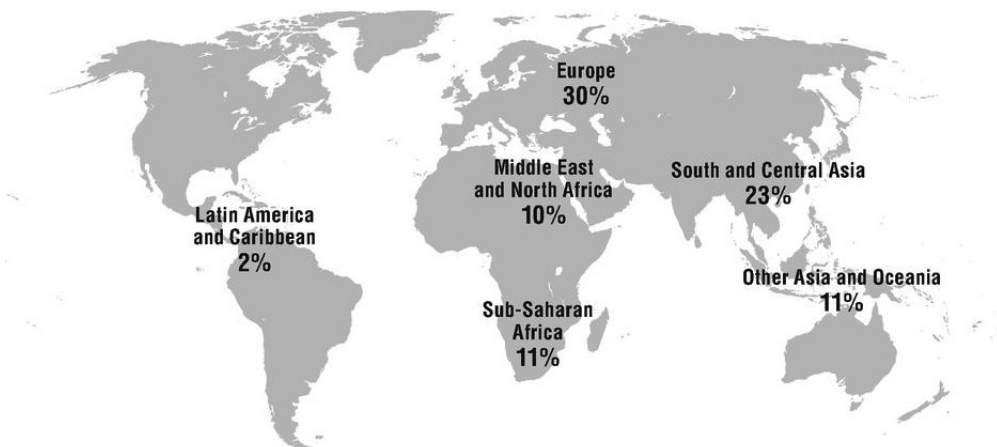
(단위: US\$ 백만, (%))

	2011	2012	2013	2014
UN 기구	8.37 (5)	7.84 (5)	9.93 (6)	9.91 (7)
EU 관련 기관	143.13 (83)	117.65 (77)	118.23 (77)	127.17 (86)
세계은행	15.65 (9)	16.86 (11)	8.09 (5)	5.94 (4)
지역 개발은행	5.61	4.72	3.84	0.00
기타 기관	0.75	6.13	13.76	4.62
합계	173.51	153.20	153.84	147.64

출처: MFA (2014:7)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이러한 다자간 ODA 비율은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기타 동유럽-후발 EU 국가들이 EU에 제공하는 다자 ODA의 규모가 월등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관련 기관은 체코의 전체 다자 ODA 중 80% 이상이 집중되어있다. 지금까지 전체 규모는 미미하나 UN 기구에 제공되는 체코 다자 ODA는 점점 증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2013년 체코 ODA의 지역배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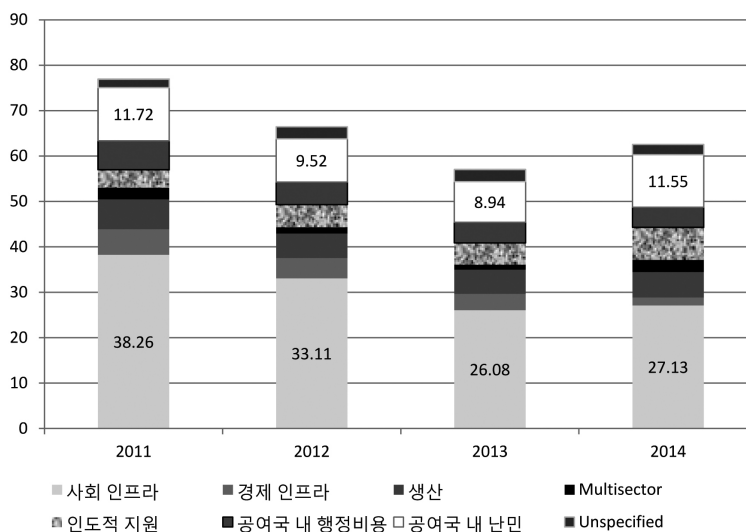
출처: OECD DAC (2015: 192).

2014년 체코는 103개 국가에 ODA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0대 수원국에 약 60% 정도의 ODA가 집중되어있고, 상위 20개 수원국이 약 88% 정도의 양자원조를 받는 정도로 집중되어있다 (부록 참조). 체코 ODA의 지역별 집중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에 30%,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23%를 배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남미에 대한 ODA 관심은 적어 약 2% 정도를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에 대한 지원이 전체 아시아 지역에서 25%에 달하고 있으며, 중점협력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3개국이 전체 아시아 지역 지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체코의 지원은 주로 유럽 내 구 동유럽 블록 국가 또는 구 소련 국가를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등이 상위 수원국이면서 유럽 배분 30%를 가능하게 한 국가이다. 특히 2014년 동안 ‘체제변환 촉진 프로그램 (Transition Promotion Program)’을 통해 약 US\$ 268만을 유럽의 구 사회주의 국가에 배분하였다. 사하라 이남지역에서는 중점협력국인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이 동 지역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7〉 체코 ODA의 섹터별 배분현황 (2007-2014)

(단위: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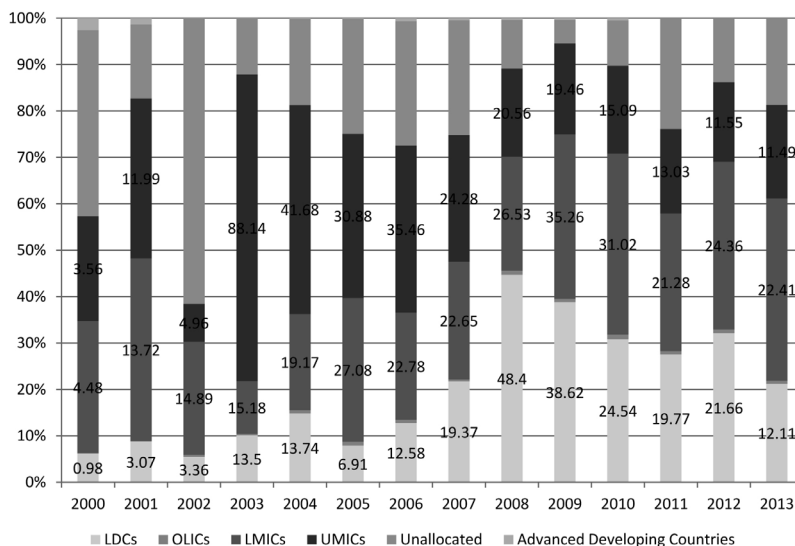


출처: MFA (2014:7).

그림 7은 체코 ODA의 섹터별 배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2011년 50%에서 2014년 43%를 차지하는 등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공여국 내 난민에 대한 지원은 2011년 전체 양자간 ODA에서 15%를 차지했으나, 2013년 16%, 2014년 19%를 차지하였다. 부채탕감의 경우 2011년 이후 단 한건도 없었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 2014년 체코는 26개국에 35개 프로젝트 (약 US\$ 4백만)를 지원했으며, 이들 국가에는 전쟁 또는 분쟁의 영향권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에 대한 재난구호, 필리핀 태풍피해 재건, 서아프리카에 대한 에볼라 지원 등이 포함된다 (MFA 2014: 4).

〈그림 8〉 체코의 ODA 수원국 소득별 분포

(단위: %)



출처: OECD data.

2013년 US\$ 1천2백만, 약 21%의 양자간 ODA가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이하 LDCs)에 배분되었다.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2012년-2013년 동안 감소했으며, 21% 역시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31%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저소득국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이하 LMICs)에 대한

지원은 2013년 기준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LDCs에 대한 지원은 GNI 대비 0.03%로 UN이 목표로 하는 GNI 대비 0.15% (즉, 전체 ODA 대비 20%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V. 체코 ODA의 특징

체코의 ODA 정책과 배분에서의 특징은 우선 높은 다자원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EU의 개발정책 목표와 발전계획에 따라 양자원조의 비율을 줄이고 다자방식의 원조를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1998년 전체 ODA에서 양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였지만 EU가입 해인 2004년에는 58.7%로 줄어들었고, 2005년 이후에는 48% 이하로 급락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참조). 이렇게 양자원조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체코의 ODA 중점협력국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어, 체코가 지향하는 대외원조와 외교적 이해관계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체코는 양자 ODA를 선호하고 있고 EU를 통한 다자지원 대상국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로 한정하기를 원하나, 기존 EU 회원국들은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또는 자신들의 옛 식민지에 대한 ODA 공여를 선호하고 있어, 체코 ODA는 체코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로 정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Waisova 2011).

체코의 ODA 배분에 있어 주요 결정요인 (determinants)은 크게 자국 안보문제, 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개발도상국의 세계시장 편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코는 각종 ODA 관련 문서를 통해 안보 이슈와 ODA를 연계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체코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해결하려는 이슈라기 보다는 EU 및 NATO의 안보 측면의 이해관계와 그 회원국으로서의 체코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은 체코 ODA의 주요 수원국으로 2008년 3월부터 아프가니스탄 Logar에 지역재건팀을 파견했다. 지역재건팀은 민간전문가 10명과 군인 2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MFA 2014). 여기에는 경제복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언론 독립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실제로 아프가니스탄과 직접적인 안보이슈가 동인이었다기 보다는 집단적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 안에서 분쟁 후 재건활동 (post-conflict reconstruction process)에 참여하면서 비교우위 분야를 확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의 개발협력에서는 안보와 ODA 활동의 연계를 강조함과 동시에 인권보호와 민주화

를 위한 지원도 강조되고 있다. 체코 외교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체제전환 국가 내의 인권 향상으로 2005년 체코는 외교부 산하에 인권전환국 (Department of Human Rights and Transformation)을 신설해 체제이행기 국가의 인권문제와 민주화를 지원하는 ‘전환협력 (transitional cooperation)’ 개념을 설정하였다 (MFA 2010b). 2010-2017년 개발협력 전략을 통해 2010년 기존의 개발협력을 보완하는 전환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비 민주국가와 비시장주의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계를 바탕으로 체코는 주변의 체제전환국들을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하여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도입, 인권준수와 체제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 2010-2017 체코의 주요 협력국

정치	개발협력		경제
전환협력국	프로그램국가	프로젝트 국가	수출우선국가
미얀마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이라크 코소보* 쿠바 몰도바*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몽골 몰도바*	조지아* 캄보디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세르비아**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멕시코 러시아 미국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주: * 전환협력국-개발협력 우선국, ** 전환협력국-개발협력 우선국-수출우선국, *** 전환협력국-수출우선국

출처: Napoka (201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협력과 전환협력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코소보와 몰도바이다. 체코가 개발협력과 전환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과거 ODA 수원국으로서의 경험과 1989년 이후 민주주의 전환을 추진했던 경험을 ODA 수원국에 전달해 주어 개발도상국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체코는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회원국으로서 무역원칙

과 OECD DAC가 권고하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이하 AfT) 방식에 따라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를 통해 AfT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세계시장 경제 질서 편입을 통해 무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체코의 무역 (특히 수출)이 개발도상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산업통상부의 원조정책은 사실상 ODA의 여러 결정요인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기타 EU 국가들과는 달리 높은 구속성 비율을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AfT와 함께 체코의 경제적 이해를 반영한 것은 ‘수출우선국가’를 제정한 것이다. 2009년 체코는 ‘체코 수출전략 (Czech Export Strategy)’를 통해 12개 수출 우선 국가를 지정해 수출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이중 세르비아는 전환협력 우선국가인 동시에 개발협력 우선 국가이며, 수출증진 국가이고, 우크라이나는 전환협력 우선국가임과 동시에 수출증진 국가이다. 2009년 이전에는 수출 우선국가와 개발협력 우선국가가 겹쳐 베트남과 몽골도 이 경우에 해당했다. 2010년에 개정된 수출우선 국가 중 개발도상국은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며, 이 중 세르비아는 ODA 프로젝트 국가이면서 수출우선국가, 우크라이나와 베트남은 ODA 기타협력 국가이면서 수출우선국에 해당한다.

기타 특징으로는 기타 전통적인 EU 공여국들과는 다른 비교적 적은 규모의 ODA와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이다. 체코는 2013년 US\$ 2억12백만의 ODA를 제공했는데, 이는 GNI 대비 0.11%로 총액기준 2012년에 비해 4.7% 감소를 의미한다. 2010-2017 개발협력전략 (MFA 2010a)을 통해 체코는 GNI대비 ODA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으나, 2010-12 기간 동안 평균 0.12%를 유지했던 것에 반해 2013-14년 0.11%로 감소하였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ODA 활동 종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결국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비용과 공여국 내 난민비용을 제외한 비구속성 ODA의 비율은 2012년 45%를 기록했다. 이는 OECD DAC 평균은 81%에 비해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역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ODA 간의 상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개발협력 전략에서도 비즈니스의 참여 확대 전략이 간접적으로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이상에서 체코의 ODA 정책과 배분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코는 비셰그라드 국가 중 폴란드와 함께 동유럽의 중견국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OECD DAC 내의 신흥공여국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수교 25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있었고 지난 2015년 12월 대통령 순방 시 한-체코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천명한바 있는바, 본 보고서의 결론은 개발협력 부문에서 체코와 한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체코는 OECD DAC 내에 신흥공여국으로 전통적인 공여국들과는 다른 ODA 공여방식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OECD DAC과 EU의 규범 내재화에 적극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외교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체코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의제 선도 및 강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체코는 다자협력 관계에서 많은 경험을 살려 삼각협력이나 다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적절한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자간 ODA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특정 섹터와 지역에 대해서 ODA 활동을 특화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의 경우 체코는 지역적으로 중부지역을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점 협력 분야 역시 수자원, 에너지, 농업 등으로 한국의 몽골에 대한 중점 협력 분야인 ICT기반 공공행정 개선, 도시개발 등과 차별화된다. 몽골이 중점협력국인 공통점과 중점협력분야의 상이성은 향후 몽골 내에서의 원조조화 활동의 강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체코의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의 내륙국으로 수자원 관리와 수처리 시설을 중점분야로 하고 있는 체코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의 5대 브랜드 프로그램 중 하나로 'Water for Better Life'를 수립하면서 수자원과 식수위생, 수처리 관련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수처리와 관련하여 체코의 특화된 개발협력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원도 체코 ODA의 비교우위와 특징 중 하나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 시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들 국가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단계별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공여국이며, 체코의 경우 구 동유럽블록 해체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경험과 시장경제 체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는 신흥공여국으로 양국 모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행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은 전통적인 공여국들과는 다른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의제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CIDA, 2005, Canada and the Czech Republic: Partners in Transition, Gatineau: CIDA.
- CONCORD, 2014, Aid Beyond 2015: Europe's Role in Financing and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ost2015, Brussels: CONCORD.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007, Document o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Graduation of EBRD Operations in the Czech Republic, (http://www.ebrd.com/downloads/country/strategy/czech_graduation_mar.pdf, 검색일: 2015.12.11).
- Horkey, Ondrej, 2010, The Europeanization of development policy: Accommodation and resistance of the Czech Republic, Paper presented at the Garnet conference "The European Union in International Affairs 2010", Brussels, 22–24 April 2010.
- Kim, Ji Hyun, 2014, South Korea's Motivation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unpublished PhD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Czech Republic website, <http://www.mzv.cz> (접속일: 2015.12.1).
- _____, 2010a,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OF THE CZECH REPUBLIC 2010–2017." (available at http://www.czda.cz/editor/filestore/File/Zakladnidokumenty/Development_Cooperation_Strategy_2010_2017.pdf, 접속일: 2015.12.1).
- _____, 2010b, "Transition Promotion Program." (available at http://www.mzv.cz/jnp/en/foreign_relations/human_rights/transition_promotion_program/index_1.html, 접속일: 2015.12.1)
- _____, 2014, Czech Republic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4. (available at http://www.czda.cz/editor/filestore/File/Zakladnidokumenty/Development_Cooperation_Strategy_2010_2017.pdf, 접속일: 2015.12.1).

- Napoka, Culz, 2011, Czech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the Neighborhood Countries (available at <http://www.fondromania.org/library/FoRS%20Compatibility%20Mode.pdf>, 접속일: 2015.12.1)
-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development/data.htm>. (접속일: 2015.12.1).
- OECD DAC website, <http://www.oecd.org/dac>
- OECD DAC, 2008, Special Review for the Czech Republic,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dac-global-relations/peer-review-czechrepublic.htm>, 접속일: 2015.6.1)
- _____, 2015,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5, Paris: OECD (available at <http://www.oecd.org/dac/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747721.htm>, 접속일: 2015.12.1)
- Sladkova, Zuzana, 2012, 'Czech Republic and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riefing Paper 2/2011, Prague: FoRS. (available at http://www.fors.cz/user_files/fors_bf.pdf, 접속일: 2015.12.1)
- USAID, 2013, 20 YEARS OF USAID ECONOMIC GROWTH ASSISTANCE IN EUROPE AND EURASIA, Washington DC: USAID.
- Waisova, Sarka, 2011, The Czech Republic and Foreign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Donor to Recipient and Back,' in Czechoslovakia and the Czech Republic in World Politics, Ladislav Cabada and Sarka Waisova (eds.), Lanham: Lexington Books.

부록 1. 2014년 체코 ODA 수원국

Ranking	Country	USD	Ranking	Country	USD
1	Ukraine	8 260 761	53	India	66 363
2	Unallocated	7 101 630	54	Iran	64 051
3	Afghanistan	5 826 321	55	Colombia	59 687
4	Moldova	4 999 381	56	Angola	55 622
5	Ethiopia	3 724 957	57	Kenya	53 375
6	Bosnia and Herzegovina	3 671 879	58	Sri Lanka	52 410
7	Georgia	2 876 981	59	Libya	50 244
8	Europe,	2 765 338	60	Bolivia	49 129
9	Mongolia	2 729 389	61	Paraguay	48 937
10	Kosovo	2 157 044	62	Tajikistan	45 806
11	Syria	1 856 064	63	Sudan	41 949
12	Serbia	1 707 000	64	Djibouti	32 287
13	Belarus	1 234 674	65	Cote d'Ivoire	30 146
14	Cambodia	1 107 736	66	Korea, Dem. Rep.	29 318
15	Vietnam	1 087 686	67	Senegal	28 070
16	Myanmar	769 125	68	Thailand	27 700
17	West Bank and Gaza Strip	695 694	69	Guatemala	23 384
18	Zambia	670 348	70	Laos	23 203
19	Armenia	669 151	71	Benin	22 876
20	Cuba	562 709	72	Chile	21 197
21	Iraq	524 831	73	Venezuela	21 182
22	Lebanon	515 295	74	Tanzania	20 260
23	Jordan	441 730	75	Bangladesh	20 155
24	Philippines	423 895	76	Cameroon	20 098
25	Central African Republic	360 607	77	Mexico	19 340
26	Liberia	301 692	78	Costa Rica	19 269

27	Nigeria	297 738	79	South Africa	17 328
28	Egypt	295 750	80	Balkans	15 996
29	South Sudan	289 048	81	South of Sahara	14 452
30	Guinea	285 022	82	Congo, Rep.	14 452
31	Yemen	255 384	83	Ecuador	13 480
32	Peru	246 809	84	Nepal	10 886
33	Albania	242 866	85	Panama	10 865
34	Kyrgyz Rep.	240 161	86	Dominican Republic	10 049
35	Montenegro	221 611	87	Eritrea	10 049
36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0 527	88	Guinea-Bissau	10 049
37	Pakistan	168 364	89	Morocco	10 049
38	Ghana	165 179	90	Somalia	10 049
39	Sierra Leone	164 622	91	Togo	10 049
40	China	118 635	92	Antigua&Barbuda	9 635
41	Turkey	115 804	93	Haiti	9 635
42	Azerbaijan	111 240	94	Nicaragua	9 596
43	Namibia	108 139	95	Mali	9 054
44	Kazakhstan	106 844	96	Uganda	8 986
45	Uzbekistan	103 679	97	Argentina	8 551
46	Zimbabwe	102 370	98	South America,	8 431
47	Algeria	100 488	99	Honduras	8 058
48	Chad	96 349	100	Africa,	6 263
49	Rwanda	85 165	101	El Salvador	5 819
50	St. Vincent & Grenadines	72 262	102	Brazil	4 817
51	Tunisia	70 590	103	Cape Verde	4 600
52	Congo, Dem. Rep.	70 342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21-195

신흥공여국 ODA 정책과 현황: 체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인 김영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연구개발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031)740-0114
팩	스	031)740-0655
홈	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다인스케치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469-335-3 93320



신홍콩여국 ODA 정책과 현황: 체코

